

한국에서도 담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의 흡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국제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의 청소년, 특히 여학생의 흡연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적, 국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만,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있는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숍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가끔 보았지만,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불문에 붙여졌지만, 언젠가는 그녀들도 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여성의 흡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사람들앞에서 흡연자임을 밝히는 것은 매우 드문일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가 라기 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이 남녀를 불문하고 건강에 나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나서 임신중의 흡연은 태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흡연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나쁜 담배를 피워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무리 흡연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해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 스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